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LA새한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감사찬양제를 6일 오후 7시에 개최했다.

## LA새한교회 40주년 감사찬양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 레위남성성가단에서 찬조 출연해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LA새한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감사찬양제를 6일 오후 7시에 개최했다. 이날 찬양제는 새한찬양대에서 혼성합창, 남성 이중창, 여성합창으로 참여해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으며, 레위남성성가단이 찬조 출연했다. 또한 이재학 장로가 '새

한 발자취'란 제목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새한찬양대와 레위남성성가단이 '세편의 복음성가'를 연합 합창을 하며 찬양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모든 참석자들과 청중들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정세훈 담임목사는 인사말에서

"새한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감사찬양제를 기획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찬양자로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해야 한다. 그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찬양제를 받아주시길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 교황은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북한을 방문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 가운데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 있을 예정이며 이날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교황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달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북한에서 열렬히 환영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바티칸은 즉각적인 응답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교황청은 오는 18일 바티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픈도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기독교 박해와 관련해 세계 최악의 국가로

꾸준히 선정돼 왔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이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권유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방북 초청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실제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교황청은 북한에 종교 자유의 제약을 일부 완화해 달라는 전제조건 하에 방북 요청을 수락할 것이라 했고 이에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북은 불발 됐다.

## 사고 기독교일보



월드쉐어 인도네시아 구호 사진

##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독교일보가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 월드쉐어 USA는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현지에서 식수, 텐트, 생필품 2천만 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지난 9월 28일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0여명에 육박, 실종자 수가 5000여명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교통과 통신 두절, 중장비 부족으로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드쉐어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텐트,

식수,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으나 삶은 터진과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덮친 비극, 지진과 쓰나미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진과 쓰나미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재민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후원 문의) 323-578-7933(강태광 목사), chap1207@hotmail.com



은혜한인교회가 이경은 목사를 초청해 추계부흥성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2면]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웍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한길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

살롬!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한길교회에서 박찬섭 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8년 10월 14일(주일) 오후 5시  
**장소** 한길교회 본당

**\* 가을 부흥회 주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 일시: 10월 19일(금) ~ 21일(주)**

**한길교회**  
 The Way Church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피코 & 놀턴 코너)  
 Tel. 323.735.0200 www.churchtheway.com



•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 환영 받지 못하는 손님 ‘조울증’



이수진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기분이란 유쾌감, 불쾌감, 두려움,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때그때 기분의 변화를 느끼면서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픔을 느낀다. 게다가 적절하게 좋은 느낌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다. 그렇지만 현실이나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한 유쾌감이 들거나 과도한 우울감이 들어 자신의 기분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기분에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분장애는 우울증과 조울증이다. 우울증(depression)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나 그에 비해 조울증은 일반인들의 낮은 관심과 인식의 부족으로 쉽게 발견되지 않고 때론 우울증으로 진단되기도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도한 유쾌감인 조증(mania)을 경험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울증으로 바뀌게 되는 증상을 반복하기 때문에 조울증이라고 불려 왔는데 현재 조울증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이다.

양극성 장애는 남성에게는 보통 조증이 먼저, 여성은 우울증이 먼저 시작되는데 우울과는 정반대인 조증의 증상은 평소보다 말이 많아서 중단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마음은 앞서 달려가고 에너지가 넘치기에 산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잠도 하루에 2~3시간 정도로 줄어든다. 힘과 의욕이 넘쳐 돈을 흥청망청 쓰기도 하며 도박을 하여 큰 돈을 잃거나 새로운 사업 구상과 계약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한다. 또한, 약물과 문란한 성생활에 빠지

는 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과도한 자신감과 함께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라던가 초능력이 있다는 과대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과대망상과 연관된 환청을 경험하기도 한다.

양극성 장애는 마음의 고통이기에 누구나 환영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은 또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정서들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양극성 장애는 그리 먼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성경 이야기 속 인물 가운데에서도 감정의 변화가 병적으로 심해 양극성 장애의 증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다.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삼상16: 14)

처음엔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던 사울은 교만과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그 자리엔 악령이 대신 자리했고 사울을 번뇌케 했다. 사울은 곧 깊은 영적 침체와 공격적인 히스테리를 함께 나타내며 롤러코스터를 타

듯 감정이 심하게 변하는 양극성 장애와 유사한 증상들을 보였고 다윗을 끝없이 의심하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사울이 자신의 공격적인 히스테리로 다윗을 죽이려는 난폭한 행위를 하다가도 다윗의 음악 연주 소리에 그의 난폭함이 가라앉더라는 내용이다. 다윗의 수금연주는 바로 사울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사울은 결국 자살과 유사한 형태로 생을 마감했다.

양극성 장애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 상담치료가 병행될 때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양극성 장애와 같은 마음의 고통에는 함께해 주는 누군가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교회커뮤니티가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진심 어린 지원을 하고 계속된 격려를 하여 고통 가운데에서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치유와 성장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다. 마음의 고통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 아주사피서픽대학, LGBT 관계 금지 조항 복구

9월 28일 아주사피서픽 대학 이사회는 동성관계를 금지하는 표현을 복구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사회는 성명서에서 “동성관계를 금지하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승인한 바가 없다”며 “그리스도 중심의 사명을 지키는 책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학생행동 강령의 변화에 대한 보도가 유포되었다. 이성교제에 관한 이 같은 조치는 결코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적이 없으며 원래의 표현대로 복구했다”고 APU 이사회가 이 대학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우리는 대담하게 성서적 가치를 지키며 그리스도 중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런 높은 이상에 어떻게 부응할지 검토하고 확실한 기반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의 이와 같은 발표에 센터 키 주 루이스빌에 위치한 남부침례신학교의 성서학 교수 데니 버크(Denny Burk)는 “이는 좋은 소식이다. 아직 동성애자 관계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 소식에 실망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힘든 날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은 옳은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그것을 고수하기를 바라고 기도하자”고 말했다.

기독교 대학의 LGBT 학생을 지지하는 단체인 브레이브커먼스(Brave Commons)의 공동집행 이사이자

APU를 졸업한 에린 그린은 페이스 북을 통해 “LGBT 학생들의 신의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말했다.

APU 이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외부 압력에 항복하지 않으며 우리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우리는 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의 계약으로 보는 성경적 이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뜻과 설계에 따른 것임을 단언한다. 혼외 관계에 대해 하나님은 절제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기독교 가치를 지지하며 대학 내에서 거룩한 삶을 지지한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도록 제자들과 학자들을 준비시키는 우리의 사명이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함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 대학이 신앙과 성을 포함해 삶의 모든 면에 대해 진지하고 올바른 가이드를 제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최적의 장소라고 믿는다.

우리는 엄격한 기독교 고등교육을 추구하며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동참하는 모든 학생들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담대히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며 그리스도 중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높은 이상에 어떻게 부응할지 검토하고 확실한 기반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 “행복을 어디서 찾나? 모든 답이 성경 안에”

(1면에 이어) “하버드 교수님이 어떤 학교에 가서 테스트를 거친 후 각 학생에게 ‘장차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개월 후 학생들을 찾아 갔더니 각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으로 도전하고 있고 실제로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발견했다. 사실은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몇 십 명

을 뽑아서 ‘테스트 결과에 의거해 뛰어난게 될 것’이라고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었던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향상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버드 교수의 말이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이 권위가 있는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각 교회마다 은혜의 잔치가 풍성하다. 은혜한인교회는 지난 4일

부터 7일까지 사일 간 이경은 목사(순복음 진주초대교회 담임)를 초청해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를 주제로 추계부흥성회를 열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의 진정한 의미와 그 축복을 성취하는 방법을 되새겼다. 첫번째 강연에서, 그는 복음화율 2.8%,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고 남존여비 사

이 강성하며 내편이 되어 주신다.” 둘째 날 새벽 집회에 선 이목사는 눅 17장 5-10절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공식”에 대해 전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내가 나를 대접한 대로 대접한다’고 하신다. 순종하지 않고 자라는 믿음은 없다. 고난이 없는 대가는 없으며 심은 것 없이 거둘 수 없다”며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고 사탄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하여 진다고 말했다. 이경은 목사는 한국교회영적대각성운동본부 여성본부장, 순복음총회신학교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한기총 선교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있다.

주디 한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OPEN HOUSE**  
 November 1, 2018 @ 7pm

ACSI,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들, 치유 받는 모임 되길”

미스바 화요 여성 첫 예배, 매주 화요일 7시 30분 LA비전교회서



미스바 화요 찬양예배 찬양팀

미스바 화요 여성찬양예배의 첫 모임이 10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LA비전교회(김대준 담임)에서 열렸다.

문정란 목사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고, 박운송 목사(엘비스사역원 원장)가 “다시 찾은 혼인잔치의 기쁨”(요2:1-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파워풀하고 아름다운 집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랍다. 기타와 드럼도 여성들이 연주하고 전 스템이 여성이다”라고 소감을 전한 후 요한복음 1장을 통해 밝건한, 훈탁한 세상에 지침이 되는 세 가지 해답을 전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 결례였다. 물질을 따라가는 삶의 종국은 허무하고 비참하

다. 예수님만이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 두번째, 예수님께 간구해야 한다. 세번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매 집회마다 일어나길 바란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이 와서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 후 찬양팀의 조미나 집사가 헌금특송을 하고 문 목사가 이 모임과 스템들을 소개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미스바의 영적 각성운동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순종했을 뿐이다. 여성으로서, 목사로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 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예배가 시작됐다.”

미스바 화요 여성찬양예배는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미스바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에서 이름을 딴,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이 이끄는, 여성을 위한 집회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LA비전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을 기획한 문 목사는 “여성들이 찬양과 기도로 치유 받고 영성을 회복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집회를 계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모임에는 여성들만 참석 가능하며, 자녀를 둔 여성들을 위해 데이케어도 제공한다. 이 집회팀은 찬양팀, 악기팀, 미디어팀 스템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면 문정란 목사(213-344-6313)에게 연락하면 된다. 주디 한 기자



제 1차 소망 건강콘서트 모습

## ‘건강한 뇌, 즐거운 노년’ 제 2차 소망건강콘서트

소망 소사이어티가 주최하고 카이론 토달이 후원하는 제 2차 소망 건강콘서트가 10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5836 Corporate Ave Ste 110, Cypress, CA 90630)에서 열린다.

UCI 방문교수인 편성범 교수(서울 고려대 의과대학)가 ‘건강한 뇌, 즐거운 노년’이란 주제로 뇌와 관련된 질환과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편 교수의 진료 및 연구 분야는 인지언어 재활과 연하장애(삼킴장애)의 재활이다. Sing Along 시간은 소망 소사이어티의 임정훈 실장이 인도한다. 카이론 토달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참석을 원하면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562-977-4580)이나 이메일(somang@somangso-ciety.org)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 한길교회 박찬섭 담임목사 위임예배 오는 14일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를 주제로

가을 부흥회 이어져



박찬섭 목사

한길교회는 박찬섭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본당에서 드린다.

오는 14일(주) 오후 5시에 한길교회는 박찬섭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본당에서 드린다. 위를 받았다. 또한 이 교회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주제로 가을 부흥회를 연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다시 건축된 성전”(스 5:1-5)을,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영광이 비추인 교회’(계4:1-11)를,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는 ‘교회의 부르심’(요20:19-23)을 주제로 박찬섭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다.

## 그레이스미션대학, 초중고 대상 무료 Writing과 수학 교육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 Ministry, 대표 제임스 구 목사)는 무료 영어 및 수학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그레이스미션대학(Grace Mission University)의 정부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이며 커뮤니티 봉

사 차원에서 실행된다. 기간은 10월 11일 목요일부터 12월 6일까지며, 매주 목요일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Writing이나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초중고 학생이며 그레이스미션대학의 근로장학

생이 가르친다. 장소는 그레이스미션대학 도서관 GL2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GMU 도서관 연락처: 714-515-5431(Library) GMU 도서관 주소: Library: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84>

### ‘2018 KIMNET’ 총회가 열린다

필자는 KIMNET(Kingdom Inter-Missions Network)의 이사로 수년간 섬기고 있다. 우리말로 한다면 “국제 선교지도자 연합모임”이라 할 수 있겠다. 매년 한번씩 열리는 총회가 올해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호성기목사)에서 열린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미주에서 사역하는 40여개 이상의 한인선교단체가 참여해 그들의 사역을 나누며 세계선교의 부흥을 위한 영적동맹을 맺는 데 목적이 있다. 매년 여러 선교단체들의 사역보고를 들으며 필자는 많은 감동과 선교에 대한 더 큰 도전을 받는다.

다양한 전문 선교단체의 선교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Misio Dei)’가 세계 각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마음에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다. 미주에서 선교적 교회의 모범을 보이는 대표적 교회 중 하나로 동부에는 “PGM선교회”를 세워 인도하는 필라 안디옥교회가 있고, 서부에는 “GMI선교회”를 인도하는 은혜한인교회가 있다.

그 교회들의 선교지향 사역을 보며 필자는 미주의 한인교회들이 닦아가야 하는 롤모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성도들을 직간접적으로 교회의 세계선교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교우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선교에 일원이 되었다는 선교적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된다.

또한 보고를 들으면 그 선교단체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유한 선교적 은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매년 놀라움과 큰 감동이 있다. 도시 속에서 복음증거를 하

며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캠퍼스의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선교, 아프리카, 동남아, 세계 어디든 물이 부족한 곳에 수도와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선교, 어린이 사역, 여성 사역, 인터넷(IT) 사역, 성경보급 사역, 도서관 사역, 신학교사역, 방송사역, 창작품 전시사역, 구호사역, 난민사역, 전문인 교회 개척 사역, 의료사역, NGO사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선교단체들을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에 주셨다.

그런 선교적 교회들과 지역교회들의 후원을 받으며 함께 사역하는 많은 건강한 선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선교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KIMNET 총회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필자의 바람이라면 아직 이 모임을 모르는 건강한 선교단체와 선교적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김빛은 어느 교회 지도자이던 또한 선교단체이던 하나님의 세계선교에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를 세계로 펼쳐주신 뜻을 깨닫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 이현석목사(314-368-2832) 김넷사무총장

###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아리스토텔레스 모순된 행복론의 교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 위에 독특한 자신의 철학을 체계화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행복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로 체계화된 행복론을 제시한 철학(행복학)자로 평가됩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플라톤의 수제자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의 인정을 받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리를 책임졌고 도서관의 방대한 책들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헬라 철학을 정리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헬라 철학은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삶의 기술(Art of Living)이라고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삶에서 실현되는 지고선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삶의 지고선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완전하고 본질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장 완전하고 성공적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의사는 의술을 통해 건강을 구현하고, 훌륭한 장군은 전쟁을 통해 승리를 구현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인생을 통해 행복을 이룬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궁극적 관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의 저서마다 행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거의 모든 강의에서 행복을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관한 견해를 이 좁은 지면에 정리하는 것은 다소 무모한 시도일 것입니다. 필자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들을 중심으로 그의 행복론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수사학에서 말하는 미덕과 번영의 결합으로서의 행복입니다. 그의 책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미덕과 번영의 결

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을 의식 있는 인간의 내면적 조건인 ‘미덕’과 능력 있는 인간의 외면적 조건인 ‘환경’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바른 생각과 삶으로 그 생각을 엮어내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미덕이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존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즉 번영이 필요합니다. 자존적인 삶의 능력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행복의 조건 즉, 미덕과 번영(성공, 능력)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둘째로 윤리학에서 언급된 행복은 절제된 중용의 행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몇 권의 윤리학 책을 저술하지만 대표적인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전하는 유언 같은 윤리적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성에서 따온 덕행으로 행복을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줄곧 미덕에 대해 뒤돌린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미덕을 실천할 수 있고 미덕을 실천하면 반드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행복은 유덕한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미덕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덕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절제와 중용을 통해

서 유덕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덕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 미덕의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덕의 생활화 혹은 미덕의 습관화는 행복한 삶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체적 처방입니다.

셋째 정치학에서 언급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입니다. 정치학에서 그는 정치의 목적이 시민들의 덕행을 통해 행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시민들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지도자들의 활동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정치’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온 힘을 기울여 설명했던 행복의 조건인 ‘미덕’을 제한적이고 부차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행복은 신들의 활동과 속고가 아니면 달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행복은 인간이 쟁취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의 도움이 아니면 행복을 쟁취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행복론을 요약하면, 행복은 적당한 능력(번영)도 필요하고 덕행을 실천하는 윤리(선한 삶)도 필요하지만 이것들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의 도움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행복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가진 성경(진리)을 알지 못해서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절대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행복)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영화 ‘워룸’의 여주인공 “난 흑인이기 이전에 기독교인 여성”

복음전도자이자 영화 ‘워룸(War Room)’의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프리실라 샤이라(Priscilla Shirer)가 기독교들은 ‘기독교적 정체성’ 안에서 더욱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텍사스 크로울리에 소재한 라이프포인트교회(LifePoint Church)의 척 버널(Chuck Bernal) 담임 목사가 샤이라의 강연 영상을 공유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영상에서 그녀는 “여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흑인으로 묘사되길 원하지 않는다. 난 흑인 여성이 아니다.

난 검게 태어난 기독교인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보통 직업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묘사한다. 만약 나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있다면 인종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는 여성이 바로 나이다. 그리고 난 그분의 약속의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진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종, 정치보다 기독교적 정체성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신은 흑인

여성, 흑인 남성, 백인 여성, 백인 남성일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인종이나 어떤 문화를 선택해선 안된다.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선언하신 것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실적을 선택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소개한 버널 목사는 “이 영상은 인종과 정치에 관한 기독교적 시각에 관해 지금까지 봐온 것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영상 중 하나이다. 프리실라 샤이라는 진실을 말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김넷 자료사진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인도네시아를 덮친 비극 솔라웨시 지진·쓰나미



월드쉐어는 현재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태를 돕고 있습니다.

- 1차 구호품을 현지 선교사들을 전달하였고
- 2차 구호품 전달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World share USA는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후/원/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선교의 다양성

빌립보서 4:1-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본문 빌립보서 4:1-13

선교는 하나님의 가르치신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전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정통한 복음과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믿고 회개함으로 진리와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나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복음화된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빌립보교회를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곳에서 묵회하게 하신 기간 동안에는 진리정통하고 성령이 계속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늘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영생의 벅찬 소망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 자기들같이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게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히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힘쓰고 애쓰며 선교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성과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힘있게 뒷바라지하는 일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깊이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애쓰고 수고했던 1년 반동안의 사역이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본문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교회와 목자를 세우셔서 많은 양떼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천국에 가도록 영적인 소망 가꾸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결실을 이루어가면서 다른 영혼들을 지옥 길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생명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자기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사게 만들어 오히려 전도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확실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생각과 말,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와 생각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목자가 자기 생각이나 방법으로 교회

를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양떼를 이끌고 그들이 하늘소망을 가꾸어 지옥 길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요 목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때로는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목자를 통하여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화인 맞은 심령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2:5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완악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면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진리를 정통하게 깨우쳐주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에 간다면 더욱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늘 소망의 구원을 얻어서 성령에 이끌리고 쓰임 받으며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영적인 힘을 실어 주어서 구령의 성과가 늘어나도록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하늘 소망의 후사로 구원얻게 하는 선교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들고나가 직접적으로 성경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초등학교도 못나왔지만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으니 그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담하고 싶어서 전도지를 가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뿌리치고 받지도 않고 때로는 받았다가 땅에 버리고 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는 가서 씨를 뿌려라 씨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열심히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때 마늘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늘 파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마늘 파는 것도 좋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교회 나가보세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마늘 팔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여자가 미쳤나, 왜 남의 장사 하는데 와서 방해해 하는거야”하면서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이 여집사

는 “별꼴 다 보겠네. 예수 믿고 천당에 가라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지랄이야”라고 하니 그 마늘 팔던 아주머니는 화가나서 달려들어 머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 여집사님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그 시장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을 지나다보니 작년 에 그런 일이 있었던 그 마늘 장사 가게 앞을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전도하려고 보니 그 가게 금고 옆에 성경, 찬송이 포개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기뻐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나요?” 하니 교회 다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다녔냐고 물으니 작년 이맘때쯤 어떤 미친 여자가 “천당가라는데 왜 지랄이냐”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하도 귀에서 맴돌고 잠도 못자게 울려서 집 근처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 다니는 1년이 되었고 열매 전에 세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 여집사님이 전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람군대의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잡아온 어린 여자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봅시다. 문둥병에 걸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들을 엘리사에게로 이끌었고 결국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써 깨닫게 되고 겸

손한 자세로 순종함으로 문둥병이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력으로 볼 때 비교도 안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세계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고침을 통해 온 아람나라가 알게 하시고 전세계에 알리시게 하신 하나님의 전도방법의 다양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 이 소녀와 같이 세상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합동하여 유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그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싹이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할 형편이 못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믿는 진리의 신령한 기쁨을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나는 세상적인 것을 가진 것이 없고 명분이나 지위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모셨기에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이 내 삶의 원동력이고 활력소가 된다”는 고백과 함께 신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의 다양성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갔던 그 소녀의 선교사명 의지를 본받아야 하며, 또 그 여집사님은 무식하게 전도하며 욕도 했지만 그 사람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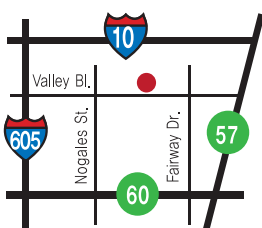
할·렐·루·야·한·인·교·회

# 창립40주년 감사예배 및 권사임직예배

##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할렐루야한인교회는 한덕수 창립목사님을 모시고 LA동부지역인 Walnut에 1978년 설립되어 지난 4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창립40주년 감사예배 및 권사임직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초대하오니 꼭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 담임목사 송재효의 모든성도 일동



- 일시 : 2018년 10월 14일(주일) 오후 4:30
- 장소 : 할렐루야한인교회 본당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 문의 : T.(909)595-3110 www.hkchurchla.org



할렐루야한인교회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 of Walnut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 Higher Calling Youth Conference 2018

꿈을 가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HCY 2018에 보내주세요.

미주 청소년 수련회  
HIGHER CALLING YOUTH 18

## UNASHAMED

**12/27 (Tue) – 29 (Sat)**  
**SAN DIEGO TOWN &  
COUNTRY HOTEL**

등록 문의 [highercallingyouth.org](http://highercallingyouth.org)



**주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 **주관** SOON Movement(KCCC) | **대표대회장** 송정명 목사  
**공동대회장** 고승희 목사, 민경엽 목사, 박성규 목사, 이성현 목사, 정영희 목사, 진유철 목사,  
한기형 목사, 한기홍 목사 | **실행위원장** 이성우 목사 | **준비위원장** 박종술 목사 | **준비위원**  
이기송 목사, 김인화 선교사, Bobby Oh, David Park, Peter Lee, Daniel Lee





화평장로교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심령부흥회를 개최했다.

### 화평장로교회 12주년 부흥회 성료

설립 12주년을 맞은 화평장로교회(담임 김용환 목사)가 지난 5일(금)부터 7일(주일)까지 심령부흥회를 개최했다. 강사로는 캘리포니아 소재 베다니한인교회 방수민 목사가 나서 재치 있는 입담과 깊이 있는 영성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었다. 6일(토) 저녁,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17~25)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방수민 목사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다. 파도처럼 물려 오는 어려움 속에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도 있을 때가 있다. 누구나 그런 날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 목사는 "하나님은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25년간 훈련시키셨다. 산을 올라가기까지 과정이 있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산이 있다. 그러고 끌고 가신다. 그 길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가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영생의 기쁨을 누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수민 목사는 "영생을 알기 위해

서는 인간이 왜 죽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 왜 죽는가. 혼자서는 그 이유를 절대 알 수 없다. 로봇이 자신의 존재이유를 고민해서 혼자 알 수 있겠는가? 설계자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이다. 철학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께 물어야만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방수민 목사는 "인간이 원래 죽도록 창조 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게 된 것이다. 겉으로는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 없다. 뽕뽕시계가 있다고 치자. 정말 멋진데 시간이 안 맞는다. 그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라고 말했다. 방수민 목사는 또 "본문을 보라. 인간은 모두 죽게 되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죽어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길을 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가는 마귀를 멸하려 예수님을 보내셨다. 죽었다 살아남으로 사망권을 깨셨다"며 창조와 죄, 구원, 영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풀어냈다.

앤더슨 김 기자



밀알 일일차집

### 밀알 일일차집 올해도 '대박', 17일 밀알의 밤 행사도 관심 가져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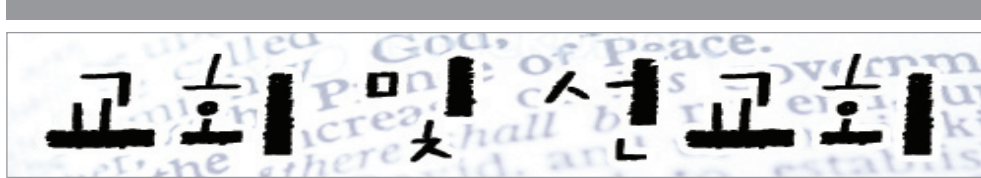
애틀랜타 가을 초입이면 어김없이 문을 여는 '밀알 일일차집'이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선교자금 마련을 위한 일일차집은 밀알 어머니 봉사단의 구수한 손맛에 지역 교회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더해져 해를 거듭할 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다. 6일(토) 밀알 후원자들과 손님들을 맞이하기에 바쁜 중 잠시 짬을 내 만난 최재휴 목사는 "선교센터를 열심히 찾고 있다. 가능하면 둘루스 북쪽에, 다만 일마라도 다운타운을 하고 구입하기를 희망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기금을 마련해 적립해 가려고 한다. 밀알 사역이 20년 가까이 되면서 장애인 학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을 품고자 몇년 전부터 주중 성인 장애인 교실을 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룹홈도 계획하고 있다. 토요일 사랑의 교실은 노크로스 밀알센터와 스와니 슈가르포한인교회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고 사역 전반을 소개했다. 장애인들과 함께 하며 지나

온 시간이 하나님 은혜이자 기쁨이었다고 밝힌 최 목사는 "언제든 장애인 친구들을 보면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은혜를 얻는다.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혹은 조금이라도 '부담'이 느껴지면 이제 내려 놓을 때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은 즐겁고 행복한 뿐이다"라고 소회를 덧붙였다. 장애인 사역은 변화를 추구하고 획기적인 구상을 기대하는 다른 사역과 달리 '반복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부모로서도 장애인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이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밀알과 함께라면 서로 격려하며 한 방향으로 꾸준히 보폭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최재휴 목사는 마지막으로 10월 17일(수),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 김세환 목사)에서 한국에서 SBS '매직아이', tvN '어쩌다 어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욱 교수와 함께하는 밀알의 밤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 하나님이기뻐하시는교회 첫 임직자 세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자비랑목회를 선언하며 시작된 하나님이기뻐하시는(KAPC, 담임 성호영 목사)가 최근 교회창립 1주년을 앞두고 임직식을 가지며 또 한번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기뻐하시는교회는 7일 오후 4시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예배를 드리고 집사 김정도, 김종일, 권사에 송남실, 윤규선 총 4명의 새 일꾼을 세웠다. 이날 임직받은 김종일 집사는 80세를 넘겼고 권사임직자들도 보통의 교회에서는 은퇴해야 할 연령을 훨씬 넘어서 있다. 이날 김정도 집사는 임직자 인사에서 "

현재 나이 80이 넘었는데 늦게 임직받은 만큼 감사함으로 섬기겠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전했다. KAPC는 교단법에 은퇴연령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담임 성호영 목사 또한 70세가 된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창립해 자비랑 목회로 교회를 이끌며 모든 헌금을 선교와 구제, 교육에 쏟고 있다. 담임목회자의 이 같은 열정에 첫 임직자들도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헌신을 다짐했다. 뉴욕 칼리지포인트에 위치한 하나님이기뻐하시는교회는 지난 1월 7일 세위됐다.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말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영혼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20(월-금)  
주일예배 오후 2:22 오전 5:30(월-금)  
주말예배 - 비블리칼교회(7)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대를 막으며, 이단기정음치료를 하며, 선교영광을 순증하는 교회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137번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시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7:30  
찬양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목)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s.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0:5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j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2014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s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아부부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0:30 라디오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매일)예배(스페인어)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디오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디오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6: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 유아,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힘쓰고, 소신, 초심, 정성의 힘, 바른교회관의 힘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이웃사랑을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찬양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교회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 예배 오전 8시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공회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6:0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1부 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대학부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쁨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177 www.churchmanna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 낮은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5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 한국교회, 대성회 열고 80년 전 신사참배 회개한다

## 10월 28일 광화문서 '한국교회일천만기도대성회' 개최



한국교회일천만기도대성회 준비보고회 기념촬영 모습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국교회일천만기도대성회'(대회장 소강석 목사, 윤보환 감독)를 개최한다.

'오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6:1)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성회는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부 주관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전계헌·최기학·전명구·이영훈 목사),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윤보환 감독)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참배 80년을 맞이하여 지금이라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임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성회 주강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주안교회 주승중 목사,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이다. 이들은 각각 '치유와 회복, 부흥의 메시지', '평화통일과 8천만 민족복음화를 위한 전진메시지', '750만 디아스포라 섬김과 세계선교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차례로 전한다.

특히 이번 대성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가지 섹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섹션에서는 '회개를 위한 기도회'를 비롯한 '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는 공동기도문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교단 총회장들이 나서 회개의 선언을 하게 된다.

주최 측은 "이번 대성회는 이제 강점기, 민족의 고난 중에 신사참배를 통해 우상숭배와 교회의 분열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생명과 평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회장 윤보환 감독은 "이 땅은 평양의 회개로 대부흥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거룩함을 잃고 교회와 민족이 암흑의 시기로 빠졌다. 그것이 바로 신사참배의 우상숭배였다"면서 "이에 대한 민족적으로 회개를 선언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윤 감독은 "일제는 1919년 3·1운동이 교회 운동이었음을 빌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게 하여 교회를 분열시켰다"면서 "이제 일제 신사

말씀 예전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평화통일과 8천만 민족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미래를 말하는 세 번째 섹션에서는 '750만 디아스포라 섬김과 선교'를 위해 진행되며 '3.1절 100주년 한국교회선언문'이 발표된다. '평화통일과 8천만 민족복음화를 위한 실천 강령'도 제정한다.

또 이날 헌금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실행이사 정태호 목사)에게 전달되며 통성기도를 통해 성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자긍심과 더불어 일반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며 "회개와 비전의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50대 이하 남성 신자 중 34.2%가 군에서 세례·침례 받았다



진중세례식 4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5월 19일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9,519명에게 세례를 동시에 주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회장 이종윤 목사)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여전도회관 루이스실에서 제18회 군선교신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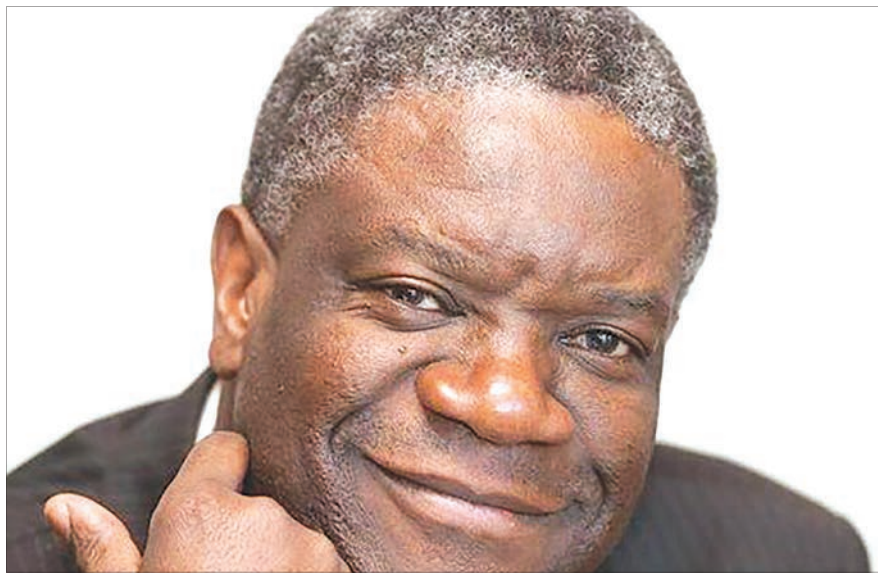
'2015 인구주택 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진중세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군선교신학심포지엄에서는 진중세례가 한국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이규철 목사는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며, 발제자로서는 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오덕교 교수(전 울산바토르대학 총장)는 '2015 인구주택 총 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진중세례를 중심으로' 발제한다. 오 교수는 진중세례와 비전2020실천운동이 기독교인 증가에 미친 영향을 입증

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논찬은 실행위원 주연중 목사(사랑의교회)가 맡았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한 '한국교회 남성신자 대상 특별 설문조사' 결과사항도 발표된다. 50대 이하 남성신자 1,596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군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약 34.2%(세례 29.1%, 침례 5.1%)인 54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된 연구논문과 특별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군선교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군선교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과 특별설문조사를 통해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결실과 함께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이 발견하게 됐다"며 "앞으로 군선교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초청의 인사를 남겼다. 이지희 기자





드니 무케게 박사. ©페이스북

# ‘노벨평화상’ 드니 무케게와 그의 기독교 신앙

## IFES “하나님의 성품으로 상처받은 이들 도왔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의사 드니 무케게(Denis Mukwege·63) 박사가 지난 5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노벨상 수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괴로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발표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무케게 박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두 차례 콩고 내전 중 잔인한 성폭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을 치료한 공로로 이라크 출신 여성 운동가 나디아 무라드(25)와 함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인 NRR은 “그의 기독교 신앙은 그의 전이적 치료에 영향을 끼쳤고, 그는 고통받는 여성들의 육을 치료할 뿐 아니라 그들이 폭력에 대해 스스로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 주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오순절교회 목사였다. 그는 어린 시절 환자를 방문하고 기도하기 위

해 심방을 나선 아버지를 따라 나갔다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스웨덴 오순절 미션’은 그가 의학을 공부하도록 도왔다. 무케게는 출산 과정에서 미흡한 의술로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산부인과로 전공을 택했다. 무케게 박사는 의대생 시절 국제복음주의학 생회(IFES)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IFES 측은 “그는 자신의 직업으로 선진국 행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 전쟁과 오랫동안 이어진 성폭력의 희생자들을 돕는 삶을 택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기독교인의 사회참여 모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방한했을 때,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보았는데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 미얀마 반정부 세력, 기독교 지도자들 억류하고 교회들 폐쇄



반군이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는 모습.

미얀마 분리주의자들이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 지도자들을 억류시키는 등 교회 단속에 나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가장 강력한 반정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와(Wa)족의 연합외국군(United Wa State Army, UWSA)은 라후침레회(Lahu Baptist Convention, LBC)에 소속된 92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산 주에 있는 42명의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군대로 징집됐다.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라후침레회는 성명서를 내고 “몽 파우크(Mong Pauk) 구역의 52개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십자가 상징을 떼어냈다. 3개의 다른 교회들은 파괴됐으며 기독교 학교들 역

시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연합외국군 대변인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도자들은 구류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극단주의자들로서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종교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후침레회 사무총장인 라자로스(Lazarus) 박사는 “구류되어 있는 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매우 걱정이 된다. 이들이 옷도 가지지 못한 채 어디론가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몽 파우크의 날씨는 매우 춥다”고 전했다.

또 “징집된 학생들이 가능하면 곧 석방되길 바란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모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반군 병사들은 지난 9월에도 교회 십자가를 파괴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현지 주민들은 “교회 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까지 철거됐으며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잡혀갔다”면서 “반군은 기독교인들을 풀어주기 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살을 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얀마의 기독교 박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스우드 처치 인 캘러’ 설립자인 밥 로버츠 박사는 지난 7월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약 60개 교회가 군사세력에 의해 파괴됐으며, 사라진 교회 자리 20곳에 불상이 세워졌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종 청소”라고 비판했다.

강혜진 기자

# 수단, 6년 동안 항구에 방치돼 있던 성경책 배포

수단의 한 항구에 6년 동안 방치돼 있던 성경책들이 곧 배포될 예정이라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월드와치 모니터(World Watch Monitor, WWM)를 인용해 보도했다.

WWM 관계자는 “성경책이 포트 수단(Port Sudan)의 선박들 안에서 6년 동안 썩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주일 전 성경책이 풀려서 수도 카르툼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단에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책과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단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성경책을 방치해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수단 그리스도교회(Sudanese Church of Christ)는 오랫동안 정부와 재산권 분쟁을 벌였고, 정부는 이를 몰수했다. 2년 간의 법적 분쟁 끝에 수단 법원은 지난 8월 정부에 재산 반환을 명령했으며, 5명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단교회에 일부 재산을 돌려주면서 성경책이 배포될 수 있었다.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장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shalom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외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찬양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더블) 7:00am  
화요일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셀가옥 예배 매일 4주 주일 오후 5: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z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포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 초, 중, 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넥스트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김일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하나님이 주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인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람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 영애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정기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름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애)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애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김인철 담임목사**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김인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만민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최성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주일 삼가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6:00pm  
주일 한가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애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백영모 선교사, 필리핀 감옥에서 126일만에 석방

## 법원, 보석 청구 선고 공판 이틀 앞두고 보석허가 통보



백영모 선교사 부부(왼쪽)가 석방 후 기뻐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필리핀에서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지난 5월 30일 억울하게 구속 수감됐던 백영모 선교사가 126일만인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경(이하 현지시간) 보석허가 통보를 받고 석방됐다.

백영모 선교사는 당초 3일 오전 마닐라 RTC(Regional Trial Court)에서 보석 청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오후 5시경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통보를 받았다.

보석허가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고발자인 필리핀국제대학교(PIC) 경비원은 백영모 선교사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10미터 밖에서는 어른 손에 쥐어진 수류탄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경비원이 12월 13일 백영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수류탄과, 12월 15일 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 발견된 수류탄이 동일한 폭발물이라는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런 이유로 인해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총기와 폭발물이 PIC 캠퍼드 운동가 아닌 가정집에서 발견됐고, 그 가정집은 경비회사에서 임대하던 곳으로 백영모 선교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곳을 확인했다”며 “이는 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적시했다.

최초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신고한 곳(PIC 캠퍼드)과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폭발물을 발견한 곳(가정집)이 다르기 때문에, 수색영장 집행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지 소식통은 그 동안 이른바 ‘셋업’ 논

란이 됐던 부분을 필리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보석 집행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RTC 콘세조 제노스 익나라가(Ma. Con-sejo Gengos-Ignalaga) 판사는 지난 9월 19일 고발인 심문 공판 후 검사 측이 제기한 의향서와 변호사 측의 의견서를 검토 후 3일 최종 선고를 예고했지만, 예정보다 이틀 앞서 보석을 결정했다.

필리핀에서는 보통 보석 결정이 내려져도 그 절차가 2-3일 가량 소요되지만, 법원 판사와 교도소장 등 현지 사법·행정 당국의 적극적 도움으로 허가 하루 만에 보석 집행이 이뤄졌다.

백영모 선교사는 출옥 후 “가족의 품과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126일 긴 시간 동안 석방을 위해 조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신 전국 교회의 성도님들과 교단 총회장, 해외선교위원장 등 목회자, 동료 선교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백영모 선교사는 당분간 안정을 취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수감 중 얻은 폐결핵을 치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셋업’ 논란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재판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백영모선교사석방대책위원회장 이형로 목사(교단 해외선교위원회 회장)도 “이제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남은 재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 이영표 위원 “억울한 일 당하거나 오해받을 때 상처 입지만...”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이 최근 일부 언론에 오르내린 ‘무통주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SNS를 통해 언급했다.

이 위원은 “항상 뉴스 스포츠면에서만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다가, 처음으로 최근 며칠 사회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뉴스의 사회면은, 스포츠면에서만 놀던, 제가 아는 네티즌 분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었다”며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하고 거칠더라”고 말했다.

이영표 위원은 “2005년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럽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할때 아내는 축구에만 집중하려며, 출산 몇 주를 앞두고 혼자 한국에 귀국해 저 없이 첫 아이를 출산했다”며 “출산 몇시간 전 전 통화에서 무통주사를 맞고 출산하자 제 의견에, 아내는 무통주사를 맞게 되면 아이가 힘들다며 끝내 주사 없이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밴쿠버에서 임신했다는 ‘셋째’에 대한 “마지막 8개월째 출산을 위해 서울로 돌아와 아이를 낳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영국과 달리 캐나다 출생자는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데 왜 굳이 서울에서 출산을 하냐고 물었지만, 우리 부부의 대답은 간단했다. 부모와 아이들의 국적이 다르게 싫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셋째를 출산할 때쯤 저는 창세기를 읽고 있었고, 출산을 코 앞에 둔 터라 유독 출산의 고통을 언급한 부분에 눈길이 갔다”며 “종종 신앙적인 생각을 서로 나누는 우리 부부에게 셋째와 둘째에 이어 셋째를 출산할때, 주사를 맞지 않는 일은 여전히 두려운 일인긴 하지만 길게 고민할 일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영표 위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독실한 크리스천은 아니다. 믿는 사람답게 올바르게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 크리스천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하지만 저는 진짜 믿음 좋고 바른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느낀 한 가지 단 더 말씀 드리겠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 실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 듣고 본 것만으로 남을 판단하는 친구나 동료 혹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판단함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또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이면과 주변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닐 때, 우리의 삶이 서로 상처주는 삶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삶,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단하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이 짧은 시간들”이라며 “매일 같이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는 각종 기사들마다 여지없이 묻어져 있는 분노의 찌꺼기들을 보며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 완벽한 청지기 요셉

맹독을 가진 뱀 코브라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수호신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거대한 해룡(海龍, sea monster)인 “라합” 혹은 “리워야단”으로 상징됩니다. 성경에서는 뱀이나 용이 모두 사탄의 상징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노예화한 국가였다면, 그곳에 이민 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됩니다.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하나님께 반항하는 문화 속에서도 요셉은 놀라운 영성을 지니고 수상의 임무를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과 이집트와 열방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작정한 택한 그릇이었습니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요셉을 채우셨습니다. 그는 청지기로서 다섯 가지 선물 모두를 받은 자입니다.

첫째로는 “시간”(time)입니다. 요셉은 건강과 장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30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었으니 풍성한 연수를 누린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재물(treasure)을 맡은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시작하여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를 생존과 번영의 풍성한 반석에 올려놓으므로, 국가 전체를 부요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집행한 그가 부자 총리가 되었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후,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 “내가 형들의 후손을 책임 진다” 말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충분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능(talents)을 받았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대신들의 꿈을 해석하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재능입니다. 그는 이 재능으로 나라를 경영합니다. 풍년에는 곡식을 모아 저장하고 흉년에는 그 곡식을 나누어 생명을 보존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그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토지제도를 완벽

합니다. 넷째로 요셉이 받은 직분(title)은 보디발장군 가족의 가정총무로부터 시작하여 시위대 감독의 실질적 부책임자,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총리의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 직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직분을 사용하여 민족과 세계를 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섯째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testimony)을 맡은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불리지는 않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해석합니다. 아울러 국가가 겪을 큰 사건을 꿈으로 꿈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진단과 처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출애굽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에 갈 것을 부탁합니다.

요셉은 5Ts를 모두 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고의 청지기직분을 감당할 믿음의 선배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이민 사회를 살아갑니다. 요셉과 그 가정 70명의 이민이 이집트를 위하여 공헌한 것처럼, 21세기에는 한인 이민이 미국과 세계에 공헌하는 기적이 열리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 학생과 교사

학생이 없는 학교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학생이 없다면 일반학교나 교회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교회든, 학교든, 홈스쿨이든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배우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저마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인격체다. 저마다 다양한 배경과 실력, 성향과 취미와 달란트를 갖고 있다. 이런 가지각색의 사람이 모여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저마다나 요즘 학생들은 철통같은 자의식과 무한정 상대주의로 뿔뿔 뿔뿔 뿔뿔 세대다.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학생이 모여있다. 공부를 잘하면서도 더 높은 점수를 얻기위해 추가 과제를 요청하는 학생, 운동은 좋아하지만 공부는 싫어하는 학생,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학생, 남의 일에 관섭하기 좋아하고 루머를 퍼뜨리는 학생, 시험을 보면 늘 F를 받지만, 교회 청소년부에서 성령충만함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학생, 선생님이나 권위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야 도와달라며 애걸복걸하는 학생, 자기는 머리가 안 좋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버티는 학생, 주변 어른들에게 늘 '일등 머느릿감'(사릿감)이라고 칭찬 받는 학생, 머리는 좋지만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학생, 아프다며 책상위에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사실 무릎 위에 아이패드를 올려놓고 몰래 영화를 보는 학생,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사소한 비난에 화산 폭발하듯 격노하는 학생.

단 한 명도 똑같은 경우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교육 환경에서 맞

닥뜨리게 되는 가장 큰 문제다. 이해력의 수준과 학습 능력이 천차만별이고 개성과 재능, 욕구가 저마다 다른, 그러면서도 아직 스스로를 온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학생들에게 일일이 잘 반응하고 각자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교사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티스트(artist), 즉 '예술가'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작품'이기 때문이다. 교사에게 소중하지 않은 학생이란 없다. 우등생이든 열등생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범적이든 태도 불량이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은 교사에게 소중하다. 물론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교사들도 깊은 갈등을 느끼게 마련이다. 학생들이 소중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

하고 도와주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이 지도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규칙을 어기며, 게으르고 불평을 일삼을 때는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교사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교사는 어려운 학생일수록 끝까지 지도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예술가의 정신이며, 시설이나 교재 충당할 수 없는 교사만의 역할이다.

그래서 교사는 완성된 예술작품, 즉 학생들의 미래를 당사자보다 먼저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그려본다는 말이다. 또한 교사는 마치 예술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재(material)를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의 규모가 큰 경우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에 획일적인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사는 예술가가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들듯 학생을 가르친다. 모네의 작품이 얼렁뚱땅 점을 찍어 그린 것처럼 보여도, 그의 삶과 배경을 연구하고, 그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한 점을 그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지 알 수 있다. 참된 교사는 학생에게 이런 투자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결작'을 만들어 내고 싶은 꿈과 바람을 가진 교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훌륭한 학생을 만드는 결정적 요소는 훌륭한 교사다. 예술가의 정신을 갖고 있는 교사는 결국 학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 예수를 따르는 자들

몇 년 전 시사잡지에 크리스천의 명칭에 대한 칼럼이 실렸습니니다. 미네아폴리스에 거주하는 사업가이면서, 아프리카 개발 자선단체의 회장을 역임했던 워드 브랜씨는 더 이상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a follower of Jesus)이라고 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페이스북에도 900개가 넘는 그룹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명칭을 여러 가지 변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름과 무니만 크리스찬일 뿐 삶의 내용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정치화에 대한 반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미국내에서 크리스천

이라는 명칭은 보수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떠난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세번째는, 제 3세계의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호멧을 따르고 부다를 따르듯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상대화와 종교다원

주의를 내포하는 것이기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형식화된 크리스천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크리스찬은 싫어한다”는 간디의 말이 요즘 들어 더 자주 인용되고 있겠습니까?

그룹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명칭은 구별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신약성경이 제시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행 11:26). 아니, 모든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영향력이 더 깊게 더 멀리 펼쳐져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성이 갈수록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더 많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 캐나다광림교회(밴쿠버)에서 담임목사 청빙

#### 자격요건

1. 감리교단에서 인정한 대학졸업 후 신학대학원 (M Div.) 졸업
2. 이민 목회 또는 해외 선교사 경력 3년 이상
3. 감리교 소속 정회원 5년급 이상
4. 연령 만 55세 미만
5. 교회법, 사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3. 목회 비전과 신앙간증서
4.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5. 소속교단 재직증명
6. 목사안수증
7. 추천서(목회자) 2개
8. 최초 6개월 이내 설교 2편 (동영상파일 or 음성파일)

#### 제출처

서류 제출처:  
15678 106A Ave Surrey, BC, V4N 1K4 청빙위원회 앞  
Email: kmcsarang@gmail.com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5일(목)까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Email: kmcsarang@gmail.com  
Phone: 604-951-1414 / 604-813-5724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 협찬

나성열린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제)  
올림픽 칼국수, M.G.M

#### 후원

기독일보, FHM미션

## 十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 (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21세기의  
민중의 명가

### 부목사 청빙

기쁨의 교회는 72년의 역사를 가진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교회로, 한국에서의 목회 경험을 통하여 미래의 Korean Diaspora 교회를 섬길 비전을 품은 1.5세, 2세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b>담당사역·소속</b>	기쁨의 교회 부목사로 포항노회 선교목사로서 동역, 한국인 교구 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사역 및 포항의 타기관 (한동대, 포항국제교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과의 협력 사역 등
<b>청빙 자격요건</b>	1)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1.5세 또는 2세 Korean American 목사 2) 미국의 장로교 소속 목사 또는 정식 인가를 받은 타교단 목사 3) 30-40대의 나이, 배우려는 마음과 선교적 열정을 가진 분 4) 한국에서 사역하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분
<b>제출서류</b>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3) 학위 (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사본 4) 설교 동영상 파일 1개 첨부
<b>제출방법</b>	2018년 10월 29일(월)까지 samuel5860@hanmail.net
<b>참고사항</b>	1) 서류 제출은 E-mail로만 접수합니다. 보내주시 서류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서류 심사 후 전화나 E-mail로 연락 후 인터뷰 합니다. 3) 청빙, 사역과 관련된 질문은 E-메일로 주시면 답해 드립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VALERO**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TOP MEDIA** www.TopmediaUSA.com  
 SIGN & PRINTING 323.265.0244

Promotion Items Stickers & Label Package Design T-shirt Print Printing & Copy

Sign & Banner Trade Show Items Van Warp Truck Warp Food Truck Warp

TRUCK & VAN WRAPS  
 BANNER & SIGN  
 PRINTING & COPY  
 TRADE SHOW ITEMS



#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 철산역 로데오거리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을 만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토요일이면 강한별 씨는 철산 로데오거리를 찾아 버스킹 찬양 예배를 드린다. 올해로 3년째. 어느덧 철산역 인근에서 드러지는 이 예배는 이곳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이야기의 주인공 강한별 씨를 만나봤다.

**현재의 버스킹 예배가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CCM 가수가 꿈이어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집안이 넉넉하지도 않고,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직장에 들어갔죠. 그러다 목디스크랑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고 퇴사를 했어요. 다시 직장을 구하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깊이 보게 하셨어요. 특히 사울과 다윗의 처음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비전과 사명이 바뀌었어요. 찬양사역자가 되려 했는데, 다윗을 보니 무엇이 되고자 할 게 아니라 그저 순종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명하신 것, 제게 주신 양들에 대한 책임감, 순종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삶에 대한 성실함. 이 세 가지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니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명의 뜻을 검색해 보니까 ‘말겨진 임무’라 하더라고요. 임무를 찾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맡겨진 것이 사역이란 것, 이미 네다섯 가지의 사명이 있었어요. 짝짝 놀랐어요. 이미 세우신 자리가 사명임을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하루를 살기 시작했어요.”

**버스킹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 었나요?**

“그 뒤로 영성일기를 나누고 싶어서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 조이 코리아 캠프 목사가님이 앱트 증정 이벤트를 올리셨어요. 버스킹 영상 이벤트였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 했어요. 계속 주님 마음을 구하다 이 걸 해도 될지 입을 뗐는데, 강력한 기쁨 부으심과 함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확인 차 기도했어

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동역자를 꼭 두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역자도 바로 구해지고, 앱트 대여까지 하루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됐어요.

또 목소리를 아끼려는 교만한 마음의 싹을 자르고자, 버스킹 예배 전 기도회도 최선을 다했는데, 목소리가 다 나간 거예요. 다행히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께 전화했는데, 뒤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게 매주 그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순종했죠. 그 후 감사하게 앱트도 선물 받았어요. 제 계획도 아니고 순종한 것인데, 기회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마련해주신 자리에서 절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을 알게 될 줄도 몰랐고, 커질 줄도 몰랐어요.”

**버스킹 예배를 수년간 지속할 수 있던 방법이 있다면.**

“저희 집에서 살면 됩니다(웃음).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10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도록 훈련 시켜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버스킹 예배를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지.**

“외부적인 게 힘들진 않아요. 힘든 건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매주 주님의 은혜로 서지만 저라고 늘 해피하고 홀리하지 않으니까요. 은혜로 하고 있어요. 제가 더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거 같을 때, 더 무릎 꿇지 못하고 주님을 소망하지 못한 상태로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요. 이 자리 서시는 분들은 다들 마찬가지로 같아요.”



강한별 씨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어진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공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엔 미혼모를 위한 콘서트가 있었어요. 재능기부로 진행이 됐는데, 일반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어머니께서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시는데, 늘 생각하는 것이 ‘오늘이 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자 그날 공연도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와 부활, 성령,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신앙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나요.**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든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고등학생 때였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간증을 듣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마침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내년이 지나면 10대가 끝나니까’하고 고등학교 3학년 동계 수련회를 특별하게 준비했었어요. 간증을 남기고 싶었어요. 특별 새벽기도도 늘 가고, 주일예배 후엔 제자훈련을 하고, 수련회 전날에도 혼자 3일 식식 금식을 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시작했어요.

수련회 첫 날, 십자가에 이마를 대고 ‘주님 앞에 제가 제일 먼저 있고 싶다고’ 기도했죠. 프로그램마다 주

님과 교제와 임재가 가득했고, 읊기 42장 5절 말씀만 보여서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오늘 주님을 보겠구나’라는 확신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가 너무 막혔어요. ‘기도를 더 뚫어가자’ 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갇힌 것 같은, 단절된 느낌이었죠. 목은 목대로 다 쉬고, 그렇게 수련회가 끝났어요. 잠이 안 와서 새벽 동안 수로보니게 여인과 혈루증 앓던 여인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했어요. 마치 사단이 너를 공격하지만, 상관없이 나아가라고 하는 거 같았어요.

주일 아침이 되니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두 손으로 제 심장을 닦아 주시는 걸 보여주셨는데, 제 심장이 그 보혈로 물들어졌어요. 영이 육을 덮으니까 제 안의 끝,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성령께서 제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목사가님이 제게 딱 마이크를 쥐어 주셨는데, 모두가 그때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해요.

제게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정말 처절하게, 제 모든 힘을 다하고 제가 제로(0)가 됐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보여주시는 사건이예요. 나중에 목상하면서 또 재해석이 됐는데, 우리 심장은 언제나 죽을 심장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이 심장이 영원히 뛰는 생명이 되었구나.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역과 직장 사이의 괴리감은 없는지.**

“예전엔 삶의 예배는 컴퓨터 앞에서 책을 펴고 찬양을 듣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어요.

보통 여름에 사역이 많은데, 이번 여름은 특히 회사 일도 많아서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사역이 없으면 몰아서 야근하기도 해요. 또 괴리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께선 온 땅을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예요.”

**앨범 발매 계획은?**

“마음 같아서는 퇴사를 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듯, 말씀과 찬양 작업을 하고 싶어요. 직장인의 삶을 아직은 허락하셨기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해 3년째 버스킹 예배를 하는데, MR로 해야 하는 시스템이 제한적인데, 말씀과 찬양이 이어지지 않을 때 한계를 느껴요. 저희 어머니가 시를 쓰시는데, 가까운 저의 소망과 바람은 저희 어머니가 쓴 시가 모으면 한 권 나올법한 분량인데, 그걸로 곡을 만들고 싶어요. 아직은 계획이 라기보단 바람이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버스킹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어요. 곳곳에서 버스킹 예배가 생겨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기뻐하시고,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요. 동시에 수면 위에 떠 오르는 동성애와 이단 문제가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빛을 선포하는 진짜 삶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저 또한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신의 기자



#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NYTS는 1900년 뉴욕에 설립된 ATS정회원 학교입니다.

**등록마감일: 2018년 10월 31일**

**등록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Korean D. Min Program): 정원15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1차수업: 2018년 12월 17일(월) - 12월 21일(금) | 40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 2차수업: 2019년 6월 17일(월) - 6월 21일(금) | 40시간
- 3차수업: 2019년 12월 16일(월) - 12월 20일(금) | 40시간
- 4차수업: 2020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 40시간
- 5차수업: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18일(금) | 40시간
- 6차수업: 2021년 5월 31일(월) - 6월 4일(금) | 40시간

**학위수여식: 2021년 6월 5일** ※6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213-272-6031



# “〈신과 함께〉 〈도깨비〉… 이상숭배 조장” ‘무당 엄마’와 ‘목사 아들’을 만나다



영화 <신과 함께> 한국 고유의 가족주의와 인연 사상을 깊게 반영한다.

### [지난주에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 로다(신 32:17)

책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의 저자는 주명식 목사는 “이상숭배는 영적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며 “불신자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인들은 무시하지만 그 결과로 귀신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 지난 주에 이어, 저자 주명식 목사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연재한다.

### 앞 편에서 무속인 전도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무당 엄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들 된 신분이니까, 기도하면서 영적 흐름을 다스리고, 하나님 믿도록 기도하면서 영접시키면 됩니다.

목사 아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분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신과 모종의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 기간이 길수록 회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보듬어 주고 회복시켜 줄 사람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일이지요.

무당 엄마: 저는 큰아들(주 목사)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학교를 못 다녔고, 그래서 글씨도 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줄 줄 외웁니다. 글씨를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기도하면 다 이뤄집니다.

목사 아들: 어머니가 지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무속적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환시(幻

視)라고, 그림처럼 그 사람에 대해 딱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믿고 나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으로 영적 분별을 해 줘야 합니다. 어머니께 처음부터 아닌 것들을 다 이야기해 드렸습다. 어머니는 무속에서부터 방언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방언을 듣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몇 년간 말씀드렸습니다. 누 군가는 환시나 투시, 예언 등을 은사로 계발하라고 하셨지만, 다 없애 지는데 5-6년 걸렸습니다.

무당 엄마: 무속인 출신들은 강아지 품듯 다독겨줘야 합니다. 그 기간이 5-6년 걸립니다. 제 경우는 아들이 다 해 주고 미국으로 간 것이지요. 우리 큰 아들은 한 번도 속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날부터 꽃꽂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핏박도 많이 받았습다. 지금은 앞에서 말한 꿈도 전혀 꾸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목사 아들: 제가 보수적인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영 분별에 대해 다 제 기준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속처럼 꿈이나 예언, 방언 등의 현상이 똑같습니다. 대신 어머니께 절대 말씀 못 하게 당부드렸습니다.

###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사회 속 이상숭배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 아들: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기층 종교 자체가 사머니즘이고, 나라의 시조라는 단군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로 볼 정도로 문화 속에 사머니즘과 우상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요즘 나온 드라마 영화에서도 무속과 사머니즘이 반영된 것들이 많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나 드라마 <도깨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 속에서 이상 숭배가 조장되고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드라마 영화는 보지 말아야 할까요.

목사 아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무당이 됐는데, 요즘은 젊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무속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무당을 하지는 않았습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팟캐스트 등을 보면, 대부분 젊은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무속으로 포장해서,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간자로서 한 뼛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식으로 방송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상숭배를 조장하고 빠지도록 만듭니다.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매체를 봐도 상관없지만, 과연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화들 때문에, 오히려 무속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국가적으로 이상을 숭배하는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 아들: 그 우상과 무속의 우상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개인을 우상화하고 신격화시켰다 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한 주민의 영혼에 직접 내려와 그를 지배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상은 의지하다 보면 신이 내려옵니다. 김일성을 섬긴다 해서 그들에게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북한에서는 오히려 사머니즘을 배제하려 합니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당 엄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신을 받습다. 저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 믿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을 꼭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의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나 같은 사람 도와주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제게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제 다 해 방됐기 때문입니다.

목사 아들: 첫째로 무속인 출신들을 교회에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율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시각으로 품고 감싸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으면 좋



주명식 목사

겠습니다. 신기나 신병이 있다면, 무속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어려움을 복음과 말씀으로 잘 돌봐서 무속인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목사 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분야가 정신이나 신기에 대한 것입니다. 제 책을 읽은 독자들 가운데 영적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둘은 목사님이고 하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야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웬지 교회 안에서 천시받는다느니 감이 있으니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편입니다.

또 하나, 신기나 귀신적 영향을 받는 분들에게 복음으로 충분히 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축사 사역이 불건전하게 사머니즘과 혼합되어 호통 치고 의식을 동원하면서, 사랑과 존중 없이 무시하듯 축기 의식을 하다 보니 거부감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귀신이 아니고 인격체입니다. 무속인이든 신병 있는 사람이든, 전도하는 이들이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져선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를 전도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권위로 짓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머니즘적입

니다. 인격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될까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막 대하는지 곧잘 느낍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말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귀신 쫓는 사역이 불건전하게 이뤄지다 보니, 그들은 더 말하지 않게 됩니다. 약한 영을 기도로 대적하는 것이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결국은 아들의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귀신을 대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체험처럼 축기 사역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를 누리실 길들이 다양하게 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대단하거나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소위 축사나 영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그런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목사리부터 내지 않습니까?

저자는 책에서 “아무쪼록 신병을 앓는 사람이나 무속인,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나 이웃 가운데 무속인이나 영적인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안내서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태권도 도장이 선교센터가 되게 하소서!

##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21)- 양복선 · 서은주 집사

신앙인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를 모르면 참 신앙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개인차가 있지만 모든 신앙인은 은혜를 사모 한다. 은혜를 사모하는 강도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한다. 은혜를 받아 은혜를 누리려는 사람일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없어 식어진 사람일수록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뉘가를 갈망하면 초라해 보인다. 돈이나 권력을 갈망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지나치게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도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은 거룩하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 은혜를 사모하는 젊은 부부를 만났다. 나누는 기도 제목과 간증을 듣는 것이 행복했다.

### 물려받은 신앙의 축복

양복선 집사는 신앙 안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이다. 장로님 이셨던 외할아버지는 오직 믿음으로 사셨다. 외할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은 어머니는 양복선 집사의 신앙을 세웠다. 양복선 집사는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어머니는 참으로 온유하셨고 늘 기도하셨다. 아들을 회초리로 훈계하신 후에도 기도하셨다. 회초리로 때리신 후에 기도하시던 어머니 모습을 양 집사는 도무지 잊을 수 없다. 청소년 시절 유흥과 충동에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을 붙들어 주었다.

### 예수님, 나의 구주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큰 좌절을 겪었다. 어릴 때 시작한 태권도는 그에게 꿈이자 희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태권도 선수 생활에 위기가 왔다. 소속 체육관이 미국 태권도 협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태권도 대회에 출전이 어렵게 된 것이다. 앞이 캄캄했다. 태권도 밖에 모르는데 태권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심각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특별기도 중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찬양 팀에서

섬겼던 그는 은혜를 사모하며 뜨겁게 부흥회 찬양을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셨다. 주님을 향한 눈물의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평안과 기쁨이 물려왔다. 주를 위한 뜨거운 찬양을 하게 되었고 찬양 사역에 더 몰입했다. 찬양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타를 배웠다.

### 방향과 방종의 유랑

은혜를 받았지만 상황은 변화가 없었다. 태권도만 아는 태권도 유망주가 태권도를 할 수 없으니 할 일이 없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잡화가게에서 신발도 팔아 봤고, 옷가게에서 옷도 팔았다. 금은방에서도 일했다. 잡재된 분노, 적당한 수입 그리고 유혼의 손길 속에서 젊은 그는 방향과 방종의 세월을 보냈다.

얼마간 일을 하니 돈이 모였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에 도장을 시작했다. 나이 24살에 태권도 체육관 관장이 된 것이다. 스스로 저축한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태권도장을 오픈했다. 스스로가 50%를 준비했던 것이다. 도장은 제법 잘 되었다. 바빴다. 사회생활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는 즐거운 자리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 아주 어렵게 수습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찔하다.

### 훈련의 시간 캔사스의 생활

사고를 수습하며 위기감을 느끼고 캔사스로 이주한다. 시카고에서 보낸 수년간의 태권도 관장으로서의 경험이 그를 캔사스로 그를 옮기게 했다. 위기감 때문에 시카고를 떠났지만 낮은 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캔사스에서 정착은 쉽지 않았지만 잘 정착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결혼을 해서 가정이 안정됐다. 가정이 안정되니 도장도, 한인회 등에서 봉사활동도, 신앙생활도 하나 같이 제자리를 찾았다. 특히 아내 서은주 집사는 신앙생활을 회복했다. 아이들도 태어나고 인생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캔사스가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건물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연이어 많은 어려움이 찾아 왔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캔사



양복선 집사(우)와 서은주 집사(좌)

스에서 밀어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준비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캔사스를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 어렵고 어려운 남가주 정착

많은 고민을 가진 양 집사와 서 집사는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LA로 2박3일 간 여행을 했다. 여행 중에 남가주로 이사를 결정했다. 이사를 하고 정착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다. 양 집사는 LA와 캔사스를 5번 왕복했고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이사과정의 어려움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사하자마자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쳤다. 우선 전 가족이 아팠다. 다섯 가족이 6개월 동안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서 집사를 위시해서 아이들이 차례로 응급실 주인공이 되었다. 아이들이 응급실을 갈 때마다 간절할 기도가 반복되었다.

나아가 6개월 동안 도장을 열 수 없었다. 한인도 많고 태권도 인구도 많을 줄 알았는데 도장을 열지 못했다. 남가주에만 오면 모든 것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 도장 오픈을 할 수가 없었다. 6개월의 실직은 양 집사 부부에게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그 길에서 두 부부는 기도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6개월을 보냈다. 기도하며 영혼이 맑아지고 영적 민감성도 얻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축복된 세

월이었다.

### NEXT사랑의교회와 하나님의 응답

그들이 기도하며 어렵게 찾은 교회가 NEXT사랑의교회다. 은혜를 사모하며 찾았던 교회에서 두 부부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고 헌신한다. 찬양으로, 유아반 교사로 섬긴다. 성도의 의무인 10의 1조를 넘어 10의 2조를 드린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어렵게 시작한 태권도 도장은 축복의 현장이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 우선 양 집사가 태권도 선수(50세 이하 품세)로 승승장구한다. 미국 국가 대표가 되었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 그냥 준우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기도응답이었다. 가정도 평안하고 도장도 안정되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온전히 느낀다. 양 집사는 매월 Spirit Day를 운영한다. 체육관 관원들을 다 모아서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한다.

### 가슴에 품은 기도의 제목과 비전들

그들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 6개월 동안 태권도 도장을 시작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응급실로 달려 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날들의 목마른 기도들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었고, 이 기도들은 언제나 입을 담겨있는 기도들이다.

첫째, 태권도 도장이 선교의 센터가 되기를 기도한다. 선교하는

태권도장이 되고 선교의 도구가 되는 태권도장이 되기를 기도한다. 많은 크리스천 유단자와 태권도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기도응답으로 세워진 태권도장이 하나님의 축복에 통로로 쓰여서 백만 명의 크리스천 유단자들과 지도자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 태권도를 통해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를 많이 세우는 것이 비전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국가대표(품세 50세 이하)인 양 집사가 미국 국가대표가 아닌 하나님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한다.

둘째, 서 집사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 헌신하기를 기도한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맘껏 섬길 수 있기를 사모한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편히 쉬고 갈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맘껏 공개하는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셋째, 이들 부부는 자녀들의 영적 삶을 위해 기도한다.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 주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셋 모두 십대를 잘 통과해 바른 믿음 위에서 기도를 기도한다. 믿음 위에 굳게 서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양복선 집사와 서은주 집사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쉽지 않은 과정들을 기도하며 이겨 왔다. 앞으로 걸어 가야할 길도 믿음의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욱 헌신하려한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다. 강태광 편집위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테고리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국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국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둔 상태입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	-----------------	-----------------	-------------	------------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